

## 실시간 드라마 한중번역의 특징과 번역품질

- 드라마 『철인왕후』의 중국어 자막을 중심으로

두빈\* · 이근석\*\*

### — 목 차 —

1. 서론
2. 실시간 번역의 특징
  - 1) 오청 2) 오타 3) 누락
  - 4) 고유명사 5) 복방사투리
3. 실시간 번역의 품질
  - 1) 한자어 2) 외래어 3) 고유어
  - 4) 관용어 5) 유행어 6) 기 타
4. 결론

### 국문초록

실시간 번역은 일반적으로 구글이나 네이버 바이두와 같은 포털에서 제공하는 기계번역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말하는 중국의 실시간 번역은 해외에서 방영 중인 외국의 인기 드라마를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것을 뜻한다. 중국에 있는 시청자들은 한국과 불과 이삼십 분의 시차를 두고 자막까지 만들어진 외국 드라마를 볼 수 있다.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이루어지는 번역과정이다.

중국의 한국드라마 실시간 번역자막 서비스는 중국 정부의 한국 대중문화수입 제한정책으로 인해 공급이 막혀버린 중국드라마팬들의 수요에 따라 더욱 활성화되었다. 실시간 번역은 대본 없이 이삼십 분이란 제한된 시간 안에 번역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다른 영상번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여러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오청, 오타, 번역

\* 충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통번역대학원 석사과정생(제1저자)

\*\* 충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교신저자)

누락, 인명표기오류, 북방사투리의 빈번한 사용 등은 실시간 번역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다. 이 밖에도 오역과 번역투도 많이 발견되어 전반적으로 번역품질이 균일하지 못하다. 중국의 실시간 한국드라마 번역은 한류의 문화권력과 중국의 정치권력의 충돌 사이에 만들어진 기이한 문화현상이다.

**키워드:** 철인왕후, 실시간 번역, 자막번역, 자막팀, 번역품질

## 1. 서론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실시간 번역이라고 하면 기계번역을 의미한다. 즉 구글, 네이버와 같은 포털에서 제공하는 번역기나 컴퓨터에서 자막이 없는 외국 영화를 볼 때 사용하는 동영상 플레이어에 내장된 기능 중 하나를 말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중국의 실시간 번역은 이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중국의 실시간 번역(實時翻譯)은 해외에서 방영 중인 외국의 인기 드라마를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것을 뜻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외국 드라마를 단순히 번역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번역된 자막을 영상에 입혀 다시 특정 동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기까지의 과정을 의미한다. ‘실시간으로 번역되어 제작된 자막’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편의상 중국에서 불리는 대로 ‘실시간 번역’이라는 용어를 본 논문에서도 사용하기로 한다.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거나 화제가 되는 외국 드라마들은 현지에서 방영되는 동시간대에 중국에서 바로 실시간 번역을 진행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막과 영상은 5분 단위로 쪼개져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에 업로드된다. 중국에 있는 시청자들은 현지와 불과 이삼십 분의 시차를 두고 자막까지 만들어진 외국 드라마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이루어지는 번역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에서 이러한 실시간 번역이 등장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해외 드라마에 대한 중국의 법률 규정 때문이다. 중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中國國家新聞出版總局)<sup>1)</sup>은 2015년도부터 해외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 기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드라마 같은 경우는 모든 촬영이 끝난 상태, 즉 제작이 완료된 상태로 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중국에서 방송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여 촬영 방식을 변경하는 한국드라마도 있었다. 바로 2016년도에 방영된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그 대표적인 사례<sup>2)</sup>이다. 『태양의 후예』는 중국 거대 미디어 회사 아이치이(愛奇藝)에 선판매된 작품으로 제작 전부터 중국 방영을 염두에 두고 기획된 드라마이다.

하지만 이런 몇몇 특수한 드라마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한국드라마들은 제작하면서 방송하는 이른바 ‘동시제작’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드라마제작 환경과 사전제작한 작품만을 심의에 올릴 수 있는 중국의 법률로 인해 한국드라마의 중국 수출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중국드라마 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초고속 인터넷으로 지구촌이 연결된 현대에 정식으로 수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인기 드라마를 마냥 기다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드라마의 화제성이 살아 있을 때 보고 싶은 것은 팬들의 당연한 심리라고 할 수 있다. 실시간 번역은 바로 이러한 수요를 파고 들었다.

두 번째, 한중 양국의 외교적 마찰은 대중문화교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 미사일 배치로 인해 한중관계가 냉각되면서 외교를 넘어 민간의 문화교류 또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때 한국의 대중문화산업 역시 그 간접 보복의 대상이 되었다. 중국 정부는 암암리에 한한령(限韓令)을 내려 중국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한국의 대중문화를 배

1) 중화인민공화국 산하 미디어 매체 심사 기관으로 중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미디어 매체들의 심사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중국의 모든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만화 등은 물론이고 수입 미디어도 이곳에서 관리와 감독을 맡는다.

2) 『태양의 후예』는 KBS 역사상 처음으로 전편 촬영을 마친 후에 방송된 드라마로 기록되고 있다.

제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중국의 공중파는 물론이고 유명 인터넷 미디어 플랫폼에서조차도 한국의 영화, 드라마, 예능프로그램들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공식적으로 한국의 대중문화를 수입할 수 있는 경로가 막히자 중국에서는 판권을 사지 않고 한국의 방송 포맷을 베끼는 예능프로그램들이 난무하거나 불법으로 한국드라마를 볼 수 있는 플랫폼들이 활성화되었다. 실시간 번역은 이러한 불법 플랫폼에서 회원 수와 조회 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장 좋은 수단 중 하나가 되었다.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한국드라마의 인기는 여전하다. 2020년 10월부터 방영된 드라마 『펜트하우스』는 중국의 대표적인 SNS인 웨이보(微博)에서 관련 게시물이 무려 96.9억 회의 조회 수와 275만 8천 건의 댓글이 달렸다.<sup>3)</sup>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Netflix)의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이미 중국에서 16.4억 회<sup>4)</sup>의 해시태그가 달렸는가 하면 드라마 관련 상품들도 현재 불티나게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두 드라마는 모두 중국에 수출된 적이 없다. 수출도 되지 않은 드라마가 이렇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얼마나 많은 한국드라마가 소비되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중국의 내부적인 법률규정, 한중 외교 문제라는 외부적 변수와 관계없이 중국 내 한국드라마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제한적이거나 아예 공급의 통로가 막혀버리게 되니, 중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불법으로 한국드라마를 시청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실시간 번역’은 한국드라마를 한국인과 같은 시간에 보고 싶어 하는 중국 내 수요가 만들어낸 기이한 번역작업이다.

본 논문은 실시간 드라마 번역이 다른 영상번역과 차별되는 특징이 무엇이며 또한 전반적인 번역품질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2021년 상반기 중국에서 가장 인기를 얻었던 한국드라마 『철인왕후』의 중국어 실시간 자막

3) 2021년 10월 2일 검색기준.

4) 2021년 10월 2일 KBS1 뉴스 보도내용을 참고함.

(20화, 총 265,034자)을 기본 텍스트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드라마의 원문 텍스트는 한국에서 출판된 『철인왕후 대본집 1,2』<sup>5)</sup>이고, 중국어 텍스트는 중국의 한국 영상 전문 플랫폼 한귀TV(韓劇TV)<sup>6)</sup>에서 방송되었던 『철인왕후』의 실시간 중국어 자막을 필자가 직접 정리한 것이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인 『철인왕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철인왕후』는 2020년 12월 12일 밤 9시부터 한국 티브이엔(tvN)에서 방송된 타임슬립과 영혼이탈을 소재로 한 퓨전 코믹 사극이다. 『철인왕후』는 중국 웹드라마 『태자비승직기(太子妃升職記)』를 리메이킹한 작품으로 방송 전부터 한중 양국에서 모두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 드라마는 청와대 최고의 남자 요리사가 사고로 물에 빠진 후에 조선 시대로 타임슬립하여 중전의 몸 안에 갇히게 되면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미 원작이 중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한국에서 리메이크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중국에서도 매우 큰 기대를 하며 기다렸던 드라마이기도 하다.

## 2. 실시간 번역의 특징

실시간 번역은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바로 번역하고 자막까지 제작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 삼십 분 이내에 작업을 완료해야 하므로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사전 정보나 대본 없이 배우들의 대사만을 듣고 번역한다는 점에서 번역의 난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번역 결과물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없이 바로 온라인에 업로드한다. 이러한 여건들로 인해 실시간 번역에는 일반적인 영상번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들이 드러난다. 이하 실시간 번역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특징들을 몇 가지 항목으

5) 박계옥·최아일 저, 『철인왕후 대본집 1,2』, 세계사, 2021.

6) 韓劇TV는 중국전용 모바일 앱으로 공식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에서 사용하는 ST, TT1, TT2는 각각 원문, 실시간 번역자막, 필자의 수정번역을 지칭한다.

### 1) 오청(誤聽)

오청은 즉 번역자가 번역과정에서 청각 인지 오류로 인한 발생한 실수를 의미한다. 실시간 번역에서 번역자들은 대본 없이 오로지 배우의 대사만을 듣고 작업을 해야 하므로 이러한 실수들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

<예시1> 9화 - 52:11

ST: 내가 단순히 주상이 **왕재**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 올린  
줄 아느냐?

TT1: 你以為我讓主上坐上王位只是因為他**王弟**很少嗎?

TT2: 你以為我讓主上坐上王位只是因為他**軟弱无能**嗎?

원문의 ‘왕재(王才)’는 임금을 할만한 재목 혹은 능력을 의미한다. TT1은 ‘재’를 ‘제’로 듣고 ‘왕제(王弟)’란 단어를 선택하여 번역하였다. 즉 왕으로서의 재능이 부족하다는 뜻을 왕의 동생이 부족하다고 오역한 것이다. 원문과 전혀 다른 엉뚱한 뜻으로 번역되어 버리는 바람에 권모술수에 능한 화자의 성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TT2 수정번역을 통해 ‘연약무능(軟弱無能)’이란 표현으로 교체하여 원문과 뜻을 맞춰보았다.

<예시2> 10화 - 30:33

ST: 내 **옆에** 눕는 것도 금지.

TT1: 也禁止枕我的**肚子**

TT2: 也禁止躺在我**旁邊**

<예시2>에서는 원문의 ‘옆에’를 ‘배(肚子)’로 오역하고 있다. 번역가가 ‘옆’이란 발음을 정확히 듣지 못하고 연음(連音)이 된 ‘페’를 ‘배’로 착각하여 일어

난 실수이다. 드라마 속에서 임금이 주인공(중진)의 옆에 눕는 장면은 등장하지만 배에 눕는 장면은 그 어디에도 없다. TT1은 드라마의 앞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 상황을 조금 의아하게 만든다. TT2에서 ‘배(肚子)’를 ‘옆에(旁邊)’로 수정하였다.

<예시3> 13화 - 40:13

ST: 미음이 아니고 포터주까흐트 / 아침부터 웬 **가래침**?

TT1: 這不是米粥 而且法式胡蘿卜濃湯 / 一大早怎么就**上起課**來了

TT2: 這不是米粥 而且法式胡蘿卜濃湯 / 一大早就開始**癡言癡語**

<예시3>의 대사는 극 중에서 중전과 대령숙수의 대화이다. 대령숙수는 중전이 말한 낯선 프랑스 음식 ‘까흐트’를 ‘가래침’이라고 언급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TT1은 ‘가래침’을 ‘가르침(上課)’으로 잘못 듣고 오역하였다. 원문의 ‘가래침’을 그대로 중국어 ‘吐痰(tǔ tán)’으로 번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직역하면 원문에서처럼 발음상의 유사성으로 인한 웃음도 유발되지 않을뿐더러 의미도 잘 통하지 않게 된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극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상한 헛소리(癡言癡語)’라는 의역을 TT2에 제시하였다.

## 2) 오타(誤打)

실시간 번역은 번역문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검토는커녕 결과물을 바로바로 영상에 입히기에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수많은 오타가 발생한다. 이 오타의 흔적들은 실시간 번역의 긴박감을 대변해주는 셈이다. 오타는 주로 중국어 입력과정에서 입력기에 같이 제시되는 동음자를 잘못 선택하거나 빠른 타자로 인해 한어병음이 끝까지 입력이 안 된 채로 선택된 단어들이 대부분이다.

<예시4> 1화 - 28:38

ST: 아 그 말은. 지금 당장 호수에 물을 채워 달라?

TT1: 啊~也就是說, 然我立刻命人把湖水注滿啊?

TT2: 啊~也就是說, 讓~~我~~我立刻命人把湖水注滿啊?

TT1의 'ran(然)'은 문맥상 TT2처럼 'rang(讓)'으로 고쳐야 비로소 원문의 뜻과 일치하게 된다. 전형적인 한어병음 오타 실수이다.

<예시5> 14화 - 15:38

ST: 저는 분명 잡아뗐는데 전하께서 워낙 확신에 차 계셔서...

TT1: 我明明已經否認了, 但殿下實在是確信不~~已~~。所以...

TT2: 我明明已經否認了, 但殿下實在是確信不~~疑~~。所以...

<예시5>에서 발견되는 오타는 '확신불이(確信不疑)'란 표현이다. 마지막 글자 이미 '이(已)'자를 TT2와 같이 의심 '의(疑)'자로 수정해야 한다. 이번 사례 역시 전형적인 동음이의자 선택 실수다.

<예시6> 2화 - 55:26

ST: 마마야 언제나 인자하시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TT1: 娘娘一直~~很都~~仁慈, 對每件事都很積極向上

TT2: 娘娘一直~~都很~~仁慈, 對每件事都很積極向上

<예시6>에서 보이는 실수는 글자의 순서가 뒤바뀐 경우이다. TT1의 '很都'는 TT2에서처럼 '都很'으로 고쳐야 정상적인 문장이 된다. 이러한 오타는 번역 실수라기보다는 단순한 입력 실수라고 봐야 할 것 같다.

### 3) 누락(漏落)

누락은 물리적으로 대사를 못 들었거나 혹은 들었으나 그것이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찾아볼 시간이 없어서 의도적으로 생략해 버린 경우다.

<예시7> 7화 - 21:44

ST: 마귀야 물렀거라! **만법교주 동화교주 대법천사 신공묘제허진군!**

TT1: 妖怪, 滾出去吧, 滾出去。

TT2: 妖怪, 滾出去吧! **万法教主 東華教主 大法天師 神功妙濟許真君!**

TT3: 妖怪, 滾出去吧! **太上老君急急如律令!**

<예시7> TT1에서 누락된 부분은 ‘만법교주 동화교주 대법천사 신공묘제허진군’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긴 대사를 번역자가 못 들었을 리는 없다. 대본이 없으니 일상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이 단어들에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TT1에서는 도교의 주문은 누락시키고 ‘물렀거라(滾出去)’라는 말만 두 번 반복하였다. TT2는 원문 도교 신들의 이름을 필자가 직접 찾아 덧붙인 것이다. 중국 시청자의 입장에서 TT2의 번역을 본다면 비록 첨가된 신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을지라도 정황상 귀신을 쫓는 주문이라는 유추는 가능해진다. TT3은 조금 낯선 도교 신들의 이름을 필자가 다시 중국영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도교의 주문으로 바뀌어 제시한 것이다. TT3이 도착언어의 문화소까지 고려한 가장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된다.

<예시8> 10화 - 31:31

ST: **화공과** 다시 오겠네.

나인에 대한 기억이 명확할수록 값은 높아지네

TT1: 我肯定會再來的。

宮女的事情你記得越清楚 我開的價碼就越高

TT2: 下次我會**帶着畫師**一起來的。

<예시8>에서는 ‘화공’이라는 단어가 누락 되었다. 이 장면은 범인으로 의심되는 나인이 방문했던 노리게 상점에 찾아온 화자가 상점 주인과 나누는 대화이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몽타주 작성을 위해 화공과 같이 오겠다고 한 대사인데 원문에는 ‘화공’이 빠진 채로 번역되어 있다. TT2에서 누락된 화공을 첨가하였다.

<예시9> 14화 - 06:12

ST: 꿈일 거야. 지난번에도 홍연이고 후궁이고 씩다 이 얼굴로 바뀌었잖아

TT1: 我肯定是在做夢 上次我也是夢到洪璉 結果全都變成了這張臉啊

TT2: 我肯定是在做夢 上次我也是夢到洪璉 還有其他妃子 結果全都變成了這張臉啊

<예시9>는 주상을 사랑하게 된 중전이 주변 사람들이 모두 주상의 얼굴로 바뀌었던 일을 회고하는 장면이다. 극 중 홍연이는 중전의 몸종 나인이다. 가장 가까이 있는 몸종을 비롯하여 주변 모든 사람의 얼굴이 주상의 얼굴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번역문에는 단지 홍연 한 사람만 들어가 있다. TT2 수정번역에서 누락된 후궁을 첨가하여 뒤에 이어지는 ‘奎都’와 호응 관계를 완성하였다.

#### 4) 고유명사

대본 없이 진행되는 실시간 번역의 흔적은 인물이나 지명과 같은 고유명사 표기에서도 발견된다.

<예시10> 1화 - 64:54 / 7화 - 53:10

ST: 이로써 안동김문 김소용은 조선의 국모가 되었음을 선포한다!

TT: 在此宣布: 安東金門的金素容成爲朝鮮國母!

ST: 이곳에서만이라도 제발 그저 아버님의 딸 소용일 수 있게 해 주세요.

TT: 起碼在這里, 就讓我只做父親的女兒昭容吧

드라마 속 주인공 중전의 이름은 김소용이다. 하지만 1화와 7화의 자막을 보면 ‘소(素)’와 ‘소(昭)’ 이렇게 각기 다른 한자로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시11> 3화 - 05:39 / 5화 - 44:58

ST : 김좌근 님 **김병인**이다.

TT : 我是金左根府的**金炳寅**。

ST : 안동김문 **병인**이란 인물입니다.

TT : 安松金門, 名叫**炳仁**。

<예시11> 또한 위와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드라마 속 주요 악역인 김병인의 이름이 3화와 5화에서 ‘인(寅)’과 ‘인(仁)’으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예시12> 2화 - 21 : 00 / 13화 - 55:21

ST : 병조판서 **김창협** 감축 드리웁니다.

TT : 兵曹判書**金昌赫**, 恭祝殿下!

ST : 훈련대장 김좌근. 그리고 병조판서 **김창협**. 이 두 사람은...

TT : 訓練大將金左根, 還有兵曹判書**金昌協**。這兩個罪人是.....

<예시12>에서는 두 가지 오류가 발견된다. 우선 2화에서 번역자는 ‘김창협’이란 이름을 ‘김창혁’으로 잘못 듣고 표기하였다. 이 인물은 13화에 다시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김창협’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드라마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요인물들의 한자표기가 일관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들은 실시간 번역이 대본이 없이 그때그때 여러 사람의 분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작업이 연속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영상번역에서는 역시 나오지 않을 단순한 번역 실수들이다.

## 5) 북방 사투리

필자가 중국어 대본을 정리하는 과정에 발견한 또 다른 실시간 번역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북방 사투리의 빈번한 사용이다.

<예시13> 1화 - 04:45

ST: 에이~ 졸었잖아요~

TT1: 哎喲! 這給我嚇得

TT2: 哎喲! 嚇死我了

<예시14> 1화 - 29:23

ST: 이제 지금 장난하나...

TT1: 跟我爾鬧呢這是

TT2: 你在跟我開玩笑嗎?

<예시15> 1화 - 39:29

ST: 아...속 시끄러워...

TT1: 啊...心里不得勁..

TT2: 啊...心里好亂啊...

<예시13-15>는 모두 북방 사투리로 번역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어 원문과 정확히 대응되는 보편적인 중국어 표현들이 TT2에 제시된 것처럼 모두 존재하고 있다. 아마도 북방 출신의 번역자가 자신의 입에 익은 표현을 사투리로 인지하지 못한 채 번역문에 그대로 옮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살펴본 고유명사의 한자 표기에서도 드러나듯 번역자는 한자(漢字)의 한국어 독음과 중국어 발음을 모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뒤7)에서 다루는 한국식 한자어 번역에서도 번역자들이 조선족일 것이라는 흔적들이 계속 발견된다. 필자는 이러한 추정을 확인하고자 실제 한위TV에 실시간 번역 관련 질의를 보냈고 번역자의 대부분이 조선족이라는 응답을 받기도 하였다.<sup>8)</sup> 일대일로 대응되는 보편적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의도 없이 사투리를 사용한 번역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북방 사투리의 빈번한 등장은 실시간 번역에 드러나는 조선족들의 말투라고 할 수 있다.

7) 3장 1)한자어 <예시16> 사주단자(四柱單子) 해설참고.

8) 2021년 9월 17일, 중국 메신저 위챗(WeChat)을 통해 직접 질의하고 답을 받음.

### 3. 실시간 번역의 품질

실시간 번역이 아닌 일반적인 드라마 번역에도 오역, 번역투, 훌륭한 번역 등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실시간 번역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번역의 스펙트럼이 발견된다. 타임슬립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드라마 속 대사에는 현대의 유행어와 사극풍의 어휘들이 공존하면서 웃음을 유발한다. 제한된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선과 현대를 넘나들며 여러 다양한 한국의 문화소들을 내포하고 있는 『철인왕후』의 대사들은 번역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다. 이번 장에는 실시간 번역을 떠나 순수한 번역물로써 드라마 『철인왕후』의 번역품질을 각각 오역과 좋은 번역 그리고 기타 항목으로 나누어 대표적인 몇몇 사례들을 비평해 보고자 한다.

#### 1) 한자어

한중번역이나 중한번역에서 번역가가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은 한자어를 그대로 도착어로 옮기는 경우이다. 양국이 의미까지 공유하는 한자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어색한 번역투의 문장이 된다. 어떤 의미에서 한자어를 그대로 옮기는 것은 번역이 아니라 한자로 된 외래어를 그대로 방치한 미완의 번역이라고도 할 수 있다. 『철인왕후』에서도 이러한 미완의 번역문은 쉽게 발견된다.

<예시16> 한자어 11화 - 10:10

ST : 마마~ 사주단자 대령했습니다.

TT1 : 娘娘, 四柱單子已經備好了

TT2 : 娘娘, 八字帖已經備好了

사주단자(四柱單子)는 혼인할 때 신부집으로 신랑의 사주를 적어서 보내는 종이를 말한다. 한국인에게는 이 단어가 익숙하지만, 중국인들은 같은 의미의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 바로 팔자첩(八字帖, bā zì tiè)이다. 태어난 연월일시를 한자로 쓰면 여덟 글자가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사주팔자(四柱八字)라고 부른다. 사주팔자 가운데 한국인들은 ‘사주’를 중국인들은 ‘팔자’를 각각 취해서 쓰고 있다. 하지만 <예시16>에서처럼 사주단자를 그대로 한자로 옮기면 일반적인 중국인들<sup>9)</sup>은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 따라서 사주단자와 정확히 등가로 번역되는 단어는 팔자첩이다.

<예시17> 1화 - 66 : 08

ST : 휘말리지 않도록 언제나 **중심을 잡고** 마음을 비우거라.

TT1 : 不要迷失自我, 要時刻**保持重心**, 摒棄雜念。

TT2 : 不要迷失自我, 要時刻**保持清醒**, 摒棄雜念。

<예시17>의 경우는 원문의 ‘중심’을 그대로 한자로 옮겼다. 하지만 TT1의 ‘保持重心’이란 표현은 한국어에서처럼 추상적 비유가 아니라 단순히 ‘몸의 균형을 잡다’라는 신체의 움직임 뜻을 뜻한다. 필자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다(保持清醒)’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TT2에 수정번역을 제시하였다.

<예시18> 2화 - 74 : 54

ST : 그 핵심이 되는 **이중장부**를 확보하는 일은 늦출 수 없습니다.

TT1 : 找到那份**双重賬簿**乃此事核心 耽擱不得

TT2 : 當務之急是找到他們做**兩本賬**的証据

<예시18>에서 문제가 되는 표현은 ‘이중장부’의 번역이다. TT1에서 번역자는 ‘이중’은 ‘쌍중’이란 중국식 단어로 번역하였고 ‘장부’는 한자어 그대로 살려두었다. 중국어에 ‘쌍중’과 ‘장부’라는 단어는 각각 존재하지만, 이 둘을 합성한 ‘쌍중장부’라는 말은 없다. 문제는 번역가가 합성해 만든 ‘쌍중장부’란 단어는 일반적인 중국인들이 글자의 의미를 유추하더라도 ‘이중장부’란 뜻으

9) 여기서 조선족은 제외된다. 한국에 거주하는 몇몇 조선족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선족들은 아직까지 결혼할 때 사주단자를 보내는 풍습을 지키고 있어 이 단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로 연상해 내기가 어렵다는 데에 있다. 원문의 이중장부와 완전히 대응하며 단어는 TT2에 제시한 것처럼 바로 ‘兩本賬(liǎngběnzhàng)’이다.

## 2) 외래어

외래어들을 자연스럽게 차용하는 한국과는 달리 중국은 모든 외래어를 중국식 한자어로 바꾼다. 이렇게 상이한 두 나라의 외래어 사용문화는 한중번역에 있어서 번역자들을 괴롭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예시19> 1화 - 01:40

ST: 자포자기한 채로 역시 나가서 도마 위의 생선을 칼로 툭툭 치다가.

**유레카.**

TT1: 自暴自棄失魂落魄地用刀剝着砧板上的魚 **尤里卡**

TT2: 自暴自棄 失魂落魄地 用刀剝着砧板上的魚 突然**靈機一動**

‘유레카’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좀처럼 풀리지 않던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았을 때 외쳤다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 단어는 한국어로 ‘마침내, 알아냈다’, ‘바로, 이것이다’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유레카’는 한국 사람에게 매우 익숙한 외래어지만 중국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표현이다. TT1에서처럼 의미 없이 음역하는 것보다는 원문의 뜻에 근접한 중국어 표현 ‘교묘한 생각이 떠오르다’란 의미의 ‘靈機一動(líng jī yī dòng)’을 사용하면 더 적절한 번역이 될 수 있다.

<예시20> 11화 - 24:21

ST: 제가 **헌팅**은 몰라도 **사냥**은 영 자신이 없어.

TT1: **hunting**我還行 打獵可是一点心想都沒有呢

TT2: **獵豔**我還行 打獵可是一点信心都沒有呢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주 쓰이는 외래어 ‘헌팅’은 생판 모르는 여성에

게 교제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행동을 뜻하는 비속어이다. TT1에서는 이 단어를 중국어로 번역하지 않고 영어로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영단어 ‘hunting’은 본래 의미 그대로 ‘사냥’으로 해석되어 버려서 원문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게 된다. 또한 뒤에 이어지는 ‘打獵(dǎ liè, 사냥)’와도 의미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 비속어 ‘헌팅’에 가장 근접한 대응어로는 ‘여색을 찾아 헤매다’란 의미의 ‘獵艷(lièyàn)<sup>10)</sup>’이란 말이 있어 수정번역으로 제시하였다.

<예시21> 7화 - 50:55

ST: 데자뷰도 아니고 그 호들갑을 또 반복하진 말자

TT1: 又不是既視感 還是別再激動一回了

TT2: 又不是情景再現 還是別再激動一回了

데자뷰란 처음 해 보는 일이나 처음 보는 대상, 장소 따위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심리적 현상을 뜻한다. 바이두(百度)백과사전에서 데자뷰(deja vu)<sup>11)</sup>를 검색해 보면 ‘既視感(jìshìgǎn)’으로 나온다. TT1은 바로 사전에 나오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번역하였다. 문제는 일반 중국인들은 이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를 뿐더러 실제 일상회화에서 ‘既視感’은 사전적 의미가 아닌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어에서 ‘既視感’은 ‘~할 것 같은 느낌<sup>12)</sup>’으로 주로 쓰이고 있어 데자뷰와는 전혀 무관하다. 필자는 원문 내용과 일치하도록 ‘장면이나 광경이 재현되다’라는 의미의 ‘情景再現’을 TT2에 제시하였다.

### 3)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는 중국어로 번역하기 전 이미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단

10) 【解釋】 追姦色. 온라인 漢語大辭典 검색 결과를 참고함. <http://www.hydc.com/cd/html9/ci170703e.htm>

11) ‘既視感’은 온라인 漢語大辭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12) 예문) 追星讓我有一種戀愛的既視感 (덕질은 나로 하여금 연애에 빠질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서들이 있지만, 고유어는 전적으로 번역자의 한국어 능력이나 사전(辭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등가로 대응하는 중국어 어휘가 있다면 간단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최대한 그 의미에 가까운 단어를 이용해 번역을 진행해야 한다.

<예시25> 1화 - 21:01

ST: 아이~저놈의 꼬리들...못 빠지게 막고 난리칠 것 같은데...

TT1: 哎~ 這些尾巴真是的...肯定會攔着不讓我跳下去啊

TT2: 哎~ 這些跟屁虫真是的...肯定會攔着不讓我跳下去啊

<예시25>는 다시 현대로 되돌아가는 타임슬립을 시도하기 위해 중전이 연못으로 걸어가는 장면이다. 원문의 꼬리란 바로 중전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궁인들을 비유한 표현이다. TT1은 꼬리를 ‘尾巴(wéiba)’로 직역해버려서 비유는 사라진 채 매우 어색한 번역투의 문장이 되었다. ‘뒤꽂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란 뜻과 정확히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으로는 ‘跟屁虫(儿), gēn pì chóng(r)’이 있다. ‘跟屁虫(儿)’은 일상회화에서도 자주 쓰이는 단어다. 쉬운 번역을 두고도 무리한 직역이 자주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번역자가 시간에 쫓겨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예시26> 3화 - 07:05

ST: 실수는 자네가 하고 손해는 왜 내가 보는가? 에이 깡쟁이! 뭐!

TT1: 是你失誤了 干嘛讓我吃虧? 你个鐵公雞

TT2: 是你失誤了 干嘛讓我吃虧? 你个自私鬼

깡쟁이는 이기적이고 인색한 사람 혹은 아주 악빠른 사람을 뜻한다. TT1의 ‘鐵公雞(tiě gōng jī)’는 구두쇠, 노랑이를 지칭하는데 이 단어는 주로 금전적인 면에서 이기적인 사람을 지칭하여 원문의 뜻과는 거리가 있다. 한국어 깡쟁이에 가장 근접한 중국어로는 ‘自私鬼(zì sī guǐ)’가 있어 수정번역에 제시하였다.

<예시27> 8화 - 47:38

ST: 저 **떠버리**가 왜 여길.

TT1: 那个**貧嘴**的家伙怎么在這儿

TT2: 那个**話癆**怎么在這儿

‘떠버리’는 자주 수다스럽게 떠드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TT1의 ‘貧嘴(pín zuǐ)’는 단순한 수다쟁이가 아닌 조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즉 말이 많은 것은 맞지만 주로 억지를 부리거나 당치 않는 말로 일을 만드는 사람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된다. 극 중 인물은 단순한 수다쟁이로 코믹한 감초 역할을 맡고 있어 ‘貧嘴’보다는 ‘話癆(huà láo)’로 번역하는 게 더 적당하다.

#### 4) 관용어

출발언어의 내용이 도착언어의 적절한 관용어로 전환되면 번역의 효과가 배가 된다. 외국어 능력과 더불어 뛰어난 모국어 구사 능력이 갖춰져야만 할 수 있는 번역이다. 도착언어의 관용어를 적절히 활용한 우수 번역 사례를 살펴보자.

<예시22> 4회 - 43:57

ST: 아무래도 관리자가 없으니 **설렁설렁** 게 틀림없어

TT: 肯定是沒人監督, 所以都在**磨洋工**

<예시22> ‘설렁설렁’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처리하거나 움직이는 모양’이다. 이 부사어를 ‘懶散的干活(설렁설렁 일하다)’라는 식으로 직역할 수도 있었겠지만, 번역자는 ‘磨洋工(mó yáng gōng)<sup>13)</sup>’이라는 속어를 가져왔다. 자칫 직역하면 길어지거나 설명조의

13) 【解釋】工作時拖延時間, 也泛指工作懶散拖沓. 온라인 漢語大辭典 검색결과를 참고함.  
http://www.hydc.com/cd/html\_a/23035.htm

문장이 될 수 있었던 표현을 중국인들이 자주 쓰는 속어를 사용하여 원문의 어감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번역하였다.

<예시23> 9화 - 30:11

ST: 나라가 **속 빈 강정** 인데 백성이 속을 채워 봤자 털리거나 하지

TT: 這個國家就是个**绣花枕头**,百姓們肚子里再有貨,不還得落个被剝削的下場

속 빈 강정은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다. 중국어에도 이 한국속담과 비슷한 사자성어가 있는데 바로 ‘**绣花枕头**(xiù huā zhěn·tou)’이다. 이 성어의 표면적인 뜻은 ‘겨가 담긴 꽃을 수놓은 베개’인데 비유적 의미는 속 빈 강정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한국의 속담을 중국의 사자성어로 전환하여 군더더기 없이 처리한 바람직한 번역 사례다.

<예시24> 10화 - 27:17

ST:내가 지금 그 폰대 생각할 처지가 아니라고. 내 **목도 간당간당한데**...

TT: 我現在哪有心思照顧那老頑固啊. 我自己都**泥菩薩過江**呢

<예시24> ‘목이 간당간당하다’는 목숨이 거의 다 되어 얼마 남지 않은 위급한 상태를 의미한다. 번역자는 ‘**泥菩薩過江**(nípú·sà guòjiāng)’이란 중국속담을 활용하여 원문의 대사를 번역하였다. 이 속담의 표면적 의미는 ‘흙으로 빚은 보살이 강을 건너다’란 뜻이지만 비유적으로는 자신의 처지조차 보존하기 어려운 위태위태한 상황을 말한다. 원문의 ‘간당간당하다’라는 어감을 중국어 속담을 활용해 살린 좋은 번역이라 생각된다.

## 5) 유행어

유행어에는 시시각각 변화는 출발언어의 문화적 배경이 담지되어 있다. 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신조어나 새로운 표현 등은 여러 가지 상징과 은유를 담고 있어 그 사회의 문화적 맥락을 알아야만 번역할 수 있다.

<예시25> 8화 - 45:04

ST: 손님들이 어찌나 끊임없는지. 거의 **맛집** 수준이야.

TT: 這客人絡繹不絕的 跟**网紅美食店**似的

일반적으로 음식 맛이 좋은 식당을 ‘맛집’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원문에 나오는 맛집은 식당이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 상황을 줄을 서서 대기 하는 ‘맛집’에 비유한 표현이다. 보통 맛집은 중국어로 ‘美食店(meǐ shí diàn)’으로 번역된다. 하지만 이 단어에는 손님들이 많이 몰려든다는 특징이 잘 드러나지는 않는다. 인터넷에서 유명세를 타고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가게를 중국에서는 ‘网紅店(wǎng hóng diàn)’이라고 부르는데 번역자는 이 두 단어를 조합하여 원문의 맛집을 ‘网紅美食店’으로 번역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유행어를 잘 대응하여 원문이 가진 웃음의 포인트를 살려낸 좋은 번역이다.

<예시26> 15화 - 63:06

ST: 라면 먹고 갈래

TT: 要不要吃个**“炮”面**再走

‘라면 먹고 갈래?’라는 표현이 한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도에 개봉한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나온 대사에서 비롯된다. 극 중 여주인공(이영애)이 함께 일을 마치고 밤늦게 집까지 데려다준 남자주인공(유지태)에게 건네는 말로 두 사람은 그날 첫 잠자리를 갖게 된다. 이러한 극 중 상황에서 비롯하여 ‘라면 먹고 갈래’는 여성이 남성에게 완곡하게 성적인 유혹을 할 때 쓰는 말로 유행하게 되었다. 중국어 ‘泡面(pào miàn)’은 인스턴트라면이다. 중국어 은어에는 ‘打炮(dǎ pào)’란 말이 있는데 이는 남녀 간의 잠자리를 의미한다. 번역자는 라면이라는 표면적 의미와 그 안에 담긴 성적인 의미까지 고려하여 ‘泡面(pào miàn)’의 ‘泡’를 ‘炮’자로 바꾸어서 번역하였다. 대사의 표면적 의미와 은유적 의미가 모두 살아 있는 매우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번역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예시27> 3화 - 49:09

ST: 철중: 담소를 나누다보니 피곤하여 회정전까지 갈 기력이 없군요.

소용: 역시 낮이밤져

TT: 哲宗: 聊了半天 我有点累了 没力气回熙政殿了

昭容: 果然是 日雄夜萎

‘낮이밤져’는 2013년도부터 방영된 JTBC 예능프로그램 『마녀사냥』에서 진행자 신동엽이 만든 축약어이다. 남녀관계를 묘사할 때 ‘낮에는 이기고 밤에는 저준다’라는 말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유행어이다. 자칫 긴 설명으로 번역해야 할 내용을 번역자는 ‘日雄夜萎’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뜻을 통하게 하였다. ‘낮의 영웅이 밤에는 병들다(쇠하다)’란 의미의 이 단어 조합은 비록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국인이라면 어떤 의미인지 단번에 알아챌 수 있다. 원문의 간결한 유행어를 효과적인 단어조합으로 풀어 번역한 좋은 사례로 꼽을 수 있겠다.

## 6) 기타

일반적으로 번역학에서 말하는 문화소는 지역이나 국가에 기반을 둔 인물, 지명, 예술작품들과 같은 문화적 산물을 의미한다. 이러한 어휘들은 출발언어에서는 익숙하지만 그대로 번역되면 도착언어 사용자들에서는 매우 생소하게 전달된다. 드라마 『철인왕후』에서도 한국적 문화소를 담고 있는 수많은 표현들이 등장한다.

<예시28> 11화 - 28:30

ST: 이런 싸이월드갬성

TT1: 這 賽我文風

TT2: 這 QQ簽名体

싸이월드는 1999년에 시작하여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에서 대유행했던

개인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이다. 현재는 성인이나 중년이 된 사람들이 추억 속에 자리 잡은 인터넷 문화로 자주 언급되는 대상이기도 하다. 싸이월드는 2000년대 초반 잠시 중국진출을 시도하였으나 실패로 끝났다. 그래서 비록 TT1에서 처럼 ‘賽我’라는 정식 중국명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현재 이 이름을 아는 중국인들은 거의 없다. TT1의 ‘賽我’라는 번역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시청자들이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번역으로써의 기능은 상실한 것이다. 필자는 싸이월드처럼 비슷한 시기 중국에서 유행했지만 지금은 다른 서비스들로 대체되어 중국인들의 추억 속에 자리 잡은 ‘QQ簽名體’로 수정번역을 제시하였다. 이 단어는 2000년대 중반 중국인터넷 문화의 향수와 감성을 끌어낼 수 있어 ‘싸이월드 캡성’과 가장 가까운 대체어라고 생각된다.

<예시29> 1화 - 03:30

ST: 이상한 나라의 장봉환

TT: 張奉煥夢游仙境

<예시29>은 영국 작가 루이스 캐럴의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라는 동화 제목에서 차용한 패러디이다. 이 영국 아동소설은 나라마다 그 번역이 조금씩 다르다. 한국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일본은 ‘불가사의한 나라의 앨리스(不思議の國のアルリス)’로 번역되어 있다. 중국 제목은 ‘앨리스몽유선경(愛麗絲夢游仙境)’인데 ‘夢游仙境’은 ‘꿈에서 선경(仙境)을 유람하다’ 정도로 번역될 수 있다. 만일 번역자가 ‘이상한 나라’를 책 제목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奇怪的國家的張奉煥’이나 ‘張奉煥在奇怪的國家’라고 직역했다면 매우 어색한 번역투의 문장이 되었을 것이다. 타임슬립으로 조선 시대에 오게 된 주인공이 자신의 처지를 동화책에 나오는 앨리스에 빗댄 이 대사는 번역자의 재치로 훌륭하게 번역되었다.

<예시30> 5화 - 09:30

ST: 포기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신판가 아냐

TT: 放弃了, 這狗血劇情我實在搞不定。

<예시30>은 주인공 중전이 피병으로 남자 주변 궁인들이 하나둘씩 울기 시작하고 마침내 여기저기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장면이다. 중전은 적당한 때를 봐서 일어나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울음소리에 민망하여 그대로 누워있게 된다. 위 대사는 그때 중전이 내뱉는 독백이다. 신파는 원래 일본의 신파극(新派劇)에서 들어온 근대 연극의 한 종류이다. 하지만 지금은 본래의 의미는 퇴색되고 ‘억지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드라마나 영화 연출’을 지칭하게 되었다. 신파는 다분히 한국에 특화된 대중문화 용어인지라 중국어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다. 번역자는 ‘狗血劇情(gǒuxuè jùqíng)’<sup>14)</sup>이란 인터넷 유행어를 가져왔다. 이 단어는 개연성 없이 갑자기 불행이 닥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당황스러운 극 전개를 비판하는 데 주로 쓰인다. 번역자는 신파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표현을 중국 유행어에서 찾아 자연스러운 번역문을 만들어 내었다.

#### 4. 결론

지금까지 드라마 『철인왕후』의 중국어 자막 텍스트를 중심으로 실시간 번역의 특징과 그 번역품질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실시간 드라마 번역이 매우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다른 영상번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정적 특징들이 발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청, 오타, 누락으로 인한 어처구니없는 번역 실수들부터 수많은 오역, 번역투, 사투리 남용 등도 빈번하게 발견되었다. 비록 적절한 관용어의 활용, 창의적인 신조어, 양국 문화소에 대한 이해라는 긍정적 번역 사례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번역품질은 균일하지 못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작

14) ‘狗血’는 개의 피와는 관계가 없다. 본래 ‘足夠 shit!’이란 표현이 ‘够’는 ‘狗’로, ‘shit’은 ‘血’로 음차 되어 ‘狗血’란 단어로 정착되었다.

업하다 보니 개인의 능력 편차에 따라 번역문의 편차도 생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량에 대한 분업은 이루어졌지만 번역작업의 통일성에 대한 협업은 부족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중국인은 여전히 실시간 번역에 의지하여 한국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실시간 번역이란 태생 자체가 드라마를 보기 위한 보조수단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가능한 한 빨리 드라마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실시간 번역의 지상목표이다. 다른 영상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번역의 정확도와 품질보다는 대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초벌 번역이다. 초벌 번역의 허술한 빈틈들은 화면에서 전개되는 배우들의 연기와 카메라의 서사로 채워질 수 있다. 중국의 실시간 번역은 한국의 문화권력과 중국의 정치권력이 충돌한 지점에서 자라난 독특한 문화 현상이다.

필자는 드라마를 감상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우선적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 오역과 번역투의 자막을 60여 개 정도 찾아내었다.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더 많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의 목적이 실시간 번역의 대략적인 번역품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 몇몇 대표적인 유형들을 분류해 비평하는 데 그쳤다. 후속연구를 통해 본 논문에서 미처 다 다루지 못한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다.

## 參考文獻

- 박계옥·최아일 저, 『철인왕후』 대본집 1,2, 세계사, 2021.
- 원림림, 「팬자막과 공식자막 번역 양성의 비교 연구-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제71집, 2021.
- 주오정, 「한국영상물의 중국어 자막 번역에 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장혜, 「한·중 문화작품 번역의 ‘번역투’대한 연구- 『봉순이 언니』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王怡迪, 「중한 드라마 자막번역 연구-청춘 드라마 『가장 좋은 우리』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温佳, 「한국 드라마 『옥탁방 왕세자』의 중국어 자막번역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洪京我, 「텍스트 유형에 따른 영화 자막 번역 연구—중국 영화 ‘非诚勿扰’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제70호, 2011.
- 朴京順, 「한국드라마의 자막번역 연구」, 『동아인문학』 제26호, 2013.
- 袁之洲, 「韩剧传播中字幕组的主体性探析--以凤凰天使字幕组为例」, 『新闻研究导刊』第18期, 2019年.
- 朱美容·李香芬, 「浅谈韩剧字幕翻译问题--以『太阳的后裔』为例」, 『祖国』第19期, 2019年.
- 方洁, 「海外视频节目字幕翻译的问题与对策」, 『海外英语』第7期, 2021年 .
- 豆瓣 <https://www.douban.com/>
-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
- 国家广播电视总局 <http://www.nrta.gov.cn/>
- 온라인 漢語大辭典 <http://www.hydc.com/>

## Abstract

### Korean-Chinese Translation Quality of Simultaneous Translation - Through “Mr. Queen” Chinese Subtitle

Du Bin · Lee, Kun Seok

Frankly speaking, real-time translation means automatic translation provided by searching engines like Google, Naver or Baidu. Instead of that, we are talking about simultaneous translation, which refers to the special streaming subtitle service in China in this thesis. When a popular foreign drama is broadcast in the original country, the subtitles will be translated to Chinese through such a subtitle team immediately, so the audiences from China could enjoy the drama with Chinese subtitle only within 20~30 minutes gap later than the original broadcasting time. This means that simultaneous translation also requests high-speed translation skills.

Anti-Korean sentiment has been an issue in China these years. Due to this reason, many Korean cultural contents could not be imported to China recently, especially dramas. Thus, to meet the needs from Chinese fans of Korean dramas, Chinese streaming service companies are dedicated to simultaneous translation. However, it is never an easy job because the subtitles should be translated in 20~30 minutes once the drama has been broadcast. And this reason also makes it easily be discriminated from other styles of video subtitle translation.

Simultaneous translation features mis-listening, mistyping, omission, the mistake of inputting wrong names, Northern Chinese dialects, etc. Besides these, we also found a lot of examples of ‘translationese’ and ‘mistranslation’. We could notice the low quality of simultaneous translation through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Nevertheless, this kind of translation could only be seemed as a primary and rough translation which is targeted to let the audience have quick understanding of the drama and it also shows the interesting phenomenon stemming from anti-Korean sentiment caused by Chinese government.

**Key word:** Mr. Queen, real-time translation, subtitle translation, Fansub group, translation quality

투 고 일 : 2021. 10. 10. / 심 사 일 : 2021. 10. 15.~ 2021. 11. 15. / 게재확정일 : 2021. 11. 20.

